

# 호남 유일 철도특성화 송원대...4차산업혁명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 특성 반영·실용성 높은 18개 학과...3년 취업률 72.8%  
철도대학 4개 과 135명 등 13~17일 수시 688명 모집  
수능최저학력·자소서 없애고 학생부 성적 100% 선발



호남 유일의 철도 특성화 대학인 송원대(총장 최수태)가 차별화한 대학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 72.8%는 차별화한 학과운영의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브랜드만족도 교육부분 1위(2018)에 이어 간호교육 인증평가(2020)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고, 2022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대학(철도특성화)부문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명문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송원대는 한 발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교육부 평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송원대는 2021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여건·교육과정·학사관리·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고등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는 정부 정책이다. 이에 따라 송원대는 교육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을 받아 한층 강화된 대학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제4,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도 우수한 평가결과를 획득했다.

◇밀착형 취업지도도 높은 취업률 달성  
송원대는 취업률 통계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 72.8%로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취·창업에 대한 노력과 진로·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일치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NCS 기반 취업특강, 이력서·자기소개서, 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실전 프로그램,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 및 취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학과마다 취업업전담교수들의 개인 맞춤형 밀착취업지도가 주효해 높은 취업률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보건 등 특성화에 강한 대학  
송원대에 설치된 18개 학과는 대부분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학과들로, 취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송원대는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차량운전교육훈련기관' 인가를 받는데 이어 2022년 '철도관제사교육훈련기관' 인가까지 받았다. 호남권을 넘어 전국 사립대 최초로 철도기관사와 철도관제사를 동시에 배출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레일,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등에 유능한 인재를 취업시키고 있다.

철도대학은 철도안전경영학과와 철도안전시스템학과, 철도안전·관제시스템학과, 철도차량·전기시스템학과 4대 학과에 신입생 135명을 모집한다. 간호교육인증평가(2020)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재활보건학과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회복지학과는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걸맞은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스포츠지도학과는 웰니스(Wellness) 특성화 학과로 현대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공예예술학과, 마용예술학과는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학과들이다. 또한 광주 전남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유아교육과를 비롯해 특성화와 현장밀착지도로 취업에 매우 유리한 경찰행정학과, 건축공학과가 설치돼 있다.

◇산학친화형, 4차산업혁명 선도 대학  
송원대는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산학친화형 대학육성을 목표 설정,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 최근 3년간 여성 취업률 79.1%를 달성하기도 했다. 고용촉진 인력양성사업(7개 과정)을 3년간 운영, 지역민 취·창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송원대는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효와 인성'과 '자존' 등 교양 필수 교과목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최수태 총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의 신산업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해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송원대만의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열정적으로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다.

송원대학교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2023학년도 수시모집으로 688명을 모집한다. 총 모집인원 722명의 95.2%를 선발한다.

송원대 수시모집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형형을 간소화해 수능최저학력 및 자기소개서의 작성 등을 없앴다는 점이다. 주요 전형별로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한다. 정내 전형으로 학생부 우수자전형과 인성우수자전형이 있다. 학생부 우수자전형은 학생부 성적 100%로 선발하며, 인성



송원대 철도대학 학생이 기관사 체험을 하고 있다.



송원대학교 전경.

(송원대 제공)

우수자전형(간호학과, 치위생학과)은 학생부 성적(70%) + 면접(30%)을 반영하고, 공예예술학과는 학생부 성적(30%) + 실기(70%)를 반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송원대 입학홈페이지(www.songwon.ac.kr/ip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대, 거점국립대 첫 연구비 수주 2000억 돌파

2021년 3069개 과제 선정 '국립대 1위'

전남대학교가 거점국립대 최초로 연구비 수주 2000억원을 돌파하며 국립대 1위에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는 2021년 기준 무려 3069개의 과제 선정으로 9개 거점 국립대학교 가운데 최초로 연구비 수주액 20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립대 1위에 올랐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국내 전체 대학 가운데서도 7위에 해당한다.

이들 과제 중에는 ▲면역치료 도전 연구단(166억6600만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35억800만원)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26억2400만원) ▲인공지능 활용 이노닉스 기반 소재개발 플랫폼 연구센터(22억원) 등 의학, 공학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광주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위·수탁, 인문한국 지원사업 등 인문분야에서도 대형 연구과제가 포함됐다.

전남대의 이런 성과는 연구자 친화형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의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보상제도 확대 등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노력의 성과로 해석된다.

전남대는 지난 2017~2018년도에도 2년 연속 연구비 수주 국립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앞으로도 창의적·도전적인 후속학문세대와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들에 대해 최적화된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연구거점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광주디자인진흥원 협약

동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은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 동신대 에너지클러스터에서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지식재산권 활용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 창업기업의 제품 설계

·제작을 지원하는 공간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 지식재산 멘토링 및 창업지원 ▲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 ▲ R&D(연구·개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연계 ▲ 기술창업지원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메이커 문화 확산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기 교류회, 설명회, 세미나, 교육, 행사도 진행한다.

동신대 이동휘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장은 "사업단이 보유한 장비와 공간, 전문기를 활용해 예비창업자와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융합하는 등 창업자의 기술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광주여대-남부대 프로그램 공유·공동 운영 협약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교육혁신원은 최근 남부대학교 교육혁신처와 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여자대학교 3UP STATION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광주여자대학교 조혜은 교육혁신원장, 한종희 교수학습지원센터장과 남부대학교 임

영희 교육혁신처장, 김태강 교육혁신부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과 대학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 운영 ▲상호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대학 간 시설·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여자대학교 조혜은 교육혁신원장은 "광주여자대학교와 남부대학교는 광산구 지역 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양 대학이 함께 협력해 지역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가 마련된 점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또한 양 대학이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 간 교류뿐만 아니라 교수자 간의 공동 연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

